

프로그램 진행개요

프로그램명	천제단		
활동목표	민족의 혼이 담겨있는 천제단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소원 빌어보기		
해설주제	위기 속에 꽃핀 민족정신, 천제단		
해설재료	-	소요시간(')	30분

프로그램 진행순서

해설단계	해설주제	주요내용	시간(')	비고
시작	1.만남	- 인사나누기 - 국립공원 소개	5분	-
주제해설	2.천제단이란?	- 천제의 의미 - 천제단의 지리, 산세	7분	-
	3.천제단의 역사	- 천제단의 변천 - 천제단의 위기(조선/일제강점기)	10분	-
	4.무등산 내의 천제단	- 현재의 천제단 - 의재 허백련	3분	-
정리	5.광주의 진산 무등산	- 소원 빌기 - 마무리	5분	-

신청인 :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장 (서명)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위기 속에 꽃핀 민족정신, 천제단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1. 만남	<p>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무등산에 대해 알려줄 일일 선생님! 자연환경해설사 000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놀러오기 정말 좋은 날이죠~ 여러분들이 이 좋은날 저에게 시간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 기대해 보답하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호응 많이 해주세요, 아셨죠? (대답유도) 네, 좋습니다! 먼저 국립공원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그리고 무등산은 어떤 산인지 간단히 소개 해 드릴게요.</p> <p>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하는 지역으로서, 이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가가 지정·관리하는 곳입니다. 전국에 21개가 있고 여러분이 지금 와 계신 이곳, 무등산은 2013년 3월에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어 21번째 국립공원이 되었답니다. 여기서 잠깐! 무등산이 왜 무등산인지 아시는분? (답변유도) 네, 무등산은 ‘없을 무’, ‘등급 등’자를 써서 ‘등급을 매길 수 없는 산’, ‘비할 데 없이 높고 큰 산’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p> <p>그밖에도 무등산국립공원은 천연기념물 제465호 무등산주상절리대를 비롯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희귀식물, 천연기념물 등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p> <p>이렇게 아름다운 무등산이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와 오물로 더럽혀지면 안되겠죠?(답변유도) 네, 여러분들은 잘 지켜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p> <p>이제 곧 해설을 시작 할텐데요, 그 전에 국립공원 내에서 지켜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p> <p>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쓰레기 투기는 절대 안됩니다. 특히 음식물이</p>

	<p>나 과일껍질은 거름이 되니 버려도 된다고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립공원에 있는 야생동물들은 이러한 부산물들을 먹으면 탈이 난다고 하니, 가지고 오셨던 모든 쓰레기들은 되가져 가셔야 합니다. 그밖에 지켜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흡연, 취사, 애완 동물 입장, 자연훼손 등 의견정리) 맞습니다. 이제 더 자세히 아셨으니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p> <p>다음으로 안전입니다. 놀러왔다가 다치시면 여러분들도 속상하고 저희도 속상하겠죠?(답변유도) 숲에서는 땅밖으로 자란 나무뿌리나 돌이 장애물이 될 수 있으니 한발한발 잘 보고 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인솔자의 지시에 따라 정연하게 움직여 주셔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죠. 개별적인 자유시간은 중간중간 드릴테니 이동 중에는 저를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2.천제단이란?</p>	<p>자, 이제 여러분이 와 계신 천제단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파란색 팻말과 돌무덤이 보이시죠?(대답유도) 네, 이 제단의 이름을 따서 이곳을 ‘천제단’이라고 합니다. 언뜻 보기에 도 제사를 지내거나, 기도를 하는 곳 같죠? ‘천제’란 하늘신[天神]에게 제(祭)를 올리는 마을공동제의입니다. 그래서 옛날 광주 사람들이 이곳에서 기우제, 기설제, 기청제를 지냈다고 합니다.</p> <p>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선조들은 풍수상의 명당을 찾아 이름붙이기를 좋아했는데요, 그중에서도 단연 으뜸인 자리를 ‘군신봉조형’자리라고 하였답니다. 신하가 임금을 받들고 있는 형상이라는 뜻이죠. 저기 건너편에 새인봉이 보이시나요? 예부터 새인봉이 사모를 쓰고 엎드려 있는 형상이라고 해서 이곳 천제단을 ‘군신봉조형’ 산세를 이루고 있다고 하였습니다.</p> <p>어떠세요, 명당자리에 오니 유독 별이 잘 들고 바람이 잔잔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천제단은 광주 고을의 제를 지내는 중요한 장소였기 때문에 명당중의 명당에 자리잡고 있습니다.</p> <p>천제단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봉황대가 있습니다. 봉황대는 원래는</p>

	<p>천제단에서 제를 모시고 봉화를 올리던 곳으로 원래는 봉화대라고 불리던곳이죠~ 이렇게 천제단은 무등산 내에서 모든 제와 풍수사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예로부터 신성한 곳으로 여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p> <p>*군신봉조형(群臣奉詔形): 群(무리 군), 신(신하 신), 봉(받들 봉), 조(조서 조, 도울 조)</p>
<p>3. 천제단의 역사</p>	<p>천제단은 원래 광주 사람들이 국가와 지역의 안녕을 비는 ‘신사’였습니다. 신라와 고려 때에는 국제를 지내는 곳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조선시대에는 읍제를 지내는 곳으로 강등되었습니다. 명나라의 간섭으로 나라에서 천제를 금지 시켰기 때문이죠. 하지만 연이은 자연재해를 천제를 통해 이겨내려는 사회적 욕구 때문에, 이 신사는 국가의 압박 속에서도 ‘천제단’으로 변경되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제단은 신사의 기능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각종 복을 비는 장소로 이용된 것이죠.</p> <p>그런데 일제강점기에 관계당국에서 우리의 민족의 혼을 말살시키기 위해 이 제단을 흔적도 없이 허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실제 천제단은 일제의 파괴로 사라졌고, 후에 의재 허백련 선생이 복원한 것이 지금 천제단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또 일제는 이 일대의 임야를 조선총독부 소유로 두어 민족정신을 말살하려 하였습니다. 이를 분통히 여긴 광주 어른들이 오랜 기간 기금을 모아 이 땅을 ‘광주청년회’의 이름으로 매수했다고 하니, 광주사람들이 천제단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 했는지 알 수 있죠.</p>
<p>4.무등산 내의 천제단</p>	<p>허백련 선생님은 이곳에 ‘단군신전’을 건립해서 민족궁지의 구심점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오늘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다만 매년 10월 3일 개천절이면 광주의 뜻있는 인사들이 천제단에서 개천절 제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p> <p>이렇게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끈질기게 버텨온 천제단은 광주의 희노애락을 함께 한 역사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천제단을 그냥 산행코</p>

	<p>스 라고 생각하고 지나치기보다는 천제단이 걸어온 역사, 광주 시민들의 민족정신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며 경건한 마음으로 다녀가시길 바라겠습니다.</p>
<p>5.광주의 진산 무등산</p>	<p>자, 이제 천제단이 어떤 곳인지 알았으니, 우리 모두 천제단 앞에서 각자 소원을 빌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천제단 주변으로 빙 둘러서 서주세요.</p> <p>(배열 정비) 자, 다들 머릿속으로 소원 하나씩 생각하셨죠? 이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작!</p> <p>(다같이 눈을 감고 소원빌기)</p> <p>이제 눈을 떠주세요. 다들 마음속으로 소원 비셨나요? 이곳 천제단의 기운을 받아 여러분들 소망하셨던 모든 것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p> <p>네, 이상으로 천제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자들은 천제단은 원래 오르기 힘든 입석대에 있었는데 점차 인가에 가까운 곳으로 내려와 이곳을 친숙한 제단으로 삼은 것이라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선조들이 조상에 대한 예를 갖추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의미겠지요? 앞으로 우리도 옛것을 소중히 하고 계승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면 안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연환경해설사 000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p>